

<현장중계>[UCN PS]김영길 UNAИ 한국협의 회장 “국민에서 세계시민으로…고등교육 패러다임이 변한다”

✎ 이우희 기자 | Ⓜ 입력 2015.10.22 16:54 | Ⓜ 수정 2015.10.22 21:17 |

댓글 0



유엔이 제시하는 고등교육 목표, 국민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바뀌어

교수, 지식전달자에서 함께 문제해결하는 학습자로
창조경제시대에 비인지적 교육도 동시에 이뤄져야



[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] “미래 고등교육은 ‘국민교육’을 넘어 ‘세계시민교육’으로 나아가야 한다.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충성된 ‘국민’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, 이러서는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.”

김영길 유엔아카데미임팩트(UNAI) 한국협의회 회장(전 한동대 총장)은 22일 오후 3시 대구 인터불고호텔 카멜리아홀에서 열린 본지 주최 UCN 프레지던트서밋(PRESIDENT SUMMIT)에서 ‘메가트렌드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: 세계시민교육’ 주제발표를 통해 “고등교육의 목표와 지평을 넓혀야 한다”고 제안했다.

초대총장으로 시작해 19년간 재임하며 경북 포항 한동대를 국내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으로 키워낸 김 회장은 현재 유엔의 고등교육방향을 주도하고 있다.

김 회장의 주제발표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목을 끌었다.

김 회장은 “교육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”이라고 전제하면서 “세계는 빈곤과 기후변화, 불평등, 테러와 전쟁 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그는 “이를 위해 지식적으로 유능한 인재만 기르기보다는, 글로벌 에티켓과 인성, 범국가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, ‘더불어 살 줄 아는’ 인재를 길러야 한다”면서 “바람직한 세계시민교육은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받아들이므로써 상호 간의 경계를 허물고, 그 지평을 넓혀가는 교육이어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

김 회장은 또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. 그는 “새로운 콘텐츠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수법 뿐 아니라, 다양하며 새롭고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교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”며 “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학습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교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따라서 “교수는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줄고,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‘미래의 학습자’로 변하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끝으로 김 회장은 “우리나라는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식 전수 중심 교육으로 ‘한강의 기적’을 이루었다”고 평가하면서도 “그러나 창의적 소프트 융합 기술이 주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인지(cognitive) 교육과 함께 가치관, 윤리, 도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인지적(non-cognitive)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